

한일경제협회 NEWS

제38호

2 0 1 7

★ ★ ★ ★ ★

CONTENTS

〈2017년도 하반기 사업안내〉

- 02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 07 2017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
- 08 제18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 10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11 제24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2018년도 상반기 사업안내〉

- 18 2018년도 이사회 및 제37회 정기총회
- 19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20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 21 2018년도 일본시장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타 안내〉

- 22 이종윤 협회 前상근부회장 육일중수장 수훈
- 23 신규회원 소개 및 회원동정
- 24 새만금단지 홍보
- 26 한일 통계자료
- 27 회원가입 안내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 한일산업기술페어2017과 연계 개최 -

- | | |
|-------|---|
| ■ 기 간 | 2017년 9월 26일(화)~27일(수) * 25일(월) 일본측 단장단 우리 정부부처 예방 |
| ■ 장 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롯데호텔서울 |
| ■ 테 마 |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
- 세션1 :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일협력
- 세션2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
| ■ 규 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1명(한국 193명, 일본 108명) |



<개회인사하는 김 윤 협회장>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 전경>

✓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결과

-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협력 강화 및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함께 미래를 열어 나아가자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 내년이면 기념비적인 '한일경제인회의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양국 경제인들은 과거 50년간 축적한 협력의 바탕위에서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등을 통해 한일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기로 합의
- 일본의 고용 확보문제와 한국의 대학생 취업난 등 각각 직면하고 있는 과제 해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 (1)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끈기있는 노력의 지속
 - (2)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
 - (3) 고령화·초미세 먼지 등 생활과 밀접한 공통의 사회과제 극복 협력
 - (4) 자원 개발·인프라 수출 등 제3국에서의 협업 확대
 - (5) 청소년 교류 확대
 - (6) 평창·도쿄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관광교류 확대
 - (7) 문화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
-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로 국내정세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양국 경제인들이 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이낙연 국무총리 예방>



<올림픽 홍보>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새만금단지 홍보영상 상영>



<환영리셉션>

서울재팬클럽 합창단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대리 예방을 통해 대한투자·기술제휴·공동사업 추진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일본 경제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양국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일산업기술페어 -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한일산업기술페어 - 한국게임업체 해외진출 상담회>

- * 협회 주관으로 한일산업기술페어 행사 중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한국 게임업체 해외진출 상담회 개최

※ 문의 : 김정호 부장(02-3014-9877) / 서광현 과장(02-3014-9886)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17. 9.26(화) ~ 27(수), 롯데호텔서울

▷ 주제 :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열어요」

■ 9.25(월)	
예방활동-만찬회 14:00~20:30	▶ 일본측 단장단 주요기관 예방 및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회 (일본측 단장단)
■ 9.26(화)	
예방활동 09:30~12:00	▶ 일본측 단장단 주요기관 예방(9/25 오후~9/26 오전)
개회 및 개회사 14:30~14:55	▶ 김 윤(金 鈞) 한일경제협회 회장·(주)삼양홀딩스 회장 ▶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前회장)
내빈축사 14:55~15:10	▶ 정부대표 : 백운규(白雲揆)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한일본대사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포상 15:10~15:35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기업 및 개인부문 시상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상 : 기업 및 개인부문 시상
올림픽 소개 15:35~15:45	▶ 이희범(李熙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15:45~16:00	Coffee Break
기조연설 16:00~16:40	▶ 허창수(許昌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GS그룹 회장) ▶ 이시게 히로유키(石毛 博行) JETRO 이사장
보고·제언/ 새만금·잰버리 소개 16:40~17:10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 ▶ 안종원(安宗原) 사조동아원그룹 고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새만금 및 2023새만금 세계잰버리대회 소개] [협회활동의 일반경과보고]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
환영리셉션 18:00~19:30	한일 양국 협회, 서울특별시 공동개최
■ 9.27(수)	
재단 연락협의회 07:30~08:30	한일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관계자만 참석
제1세션 09:00~11:30 (20분×4명발표) 70분 토론)	☐ 좌장 : 노성태(盧成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 주제 :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일협력 ▶ 정인교(鄭仁敎)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제15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한일의 대응」 ▶ 후지야마 도모히코(藤山 知彦) 국립과학진흥기구 상석 Fellow 「한일의 세계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 ▶ 안덕근(安德根)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축과 한일협력」 ▶ 오오가와라 아키오(大河原 昭夫) 일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한일/일한포럼 25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패널디스커션, 질의응답
오찬회 11:45~13:10	오찬회 및 공동성명(안) 심의회
제2세션 13:20~15:40 (15분×4명발표) 80분 토론)	☐ 좌장 : 고하리 스스무(小針 進) 시즈오카현립대학 국제관계학부교수·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장 ☐ 주제 :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 / 가일층의 한일경제협력을 향해서 ▶ 이우광(李佑光)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문위원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일협력방안」 ▶ 후지요시 유우코우(藤吉 優行) 한국미쓰비시상사(주) 대표이사, SJC이사장 「향후 한일 양국기업의 연계·협업에 대해」 ▶ 이민화(李珉和)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4차 산업혁명과 전문직의 변화」 ▶ 다카야스 유이치(高安 雄一) 다이토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일 양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패널디스커션, 질의응답
폐회식 16:00~16:20	공동성명 채택, 폐회인사 / 16:30~17:00 공동기자회견(양국 단장)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

-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한일공통과제 해결·청소년 육성교류 등,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에 대해 논의
 - 특히, 한일 양국은 일본의 고용 확보문제와 한국의 대학생 취업난 등 각각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인식을 공유
-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끈질긴 노력의 지속
 - 한일 양국, 나아가 아시아 전역의 경제발전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실현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노력 지속
-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협력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IoT, AI 등의 자율적 최적화의 고도화·생산성 향상·노동인력의 이동·저출산 고령화 대응·최첨단 의료분야·바이오기술 발전·녹색기술의 혁신 등 폭넓은 발전을 지향
- 공통 사회과제의 극복
 - 고령화에 따른 의료요양문제, 초미세먼지(PM2.5) 대응 등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제 구축에 협력
- 제3국에서의 협업 확대
 - 자원개발, 인프라수출 등 제3국 공동협업 확대
- 청소년 교류를 한층 더 확대
 - 한일의 다음 50년을 젊어질 젊은이들의 교류 확대와 내실이 중요
 -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한일학생미래회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양국 정부에 가일층의 지원을 요청함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해서
 - 두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상호 협력
- 양국 정부에 대한 기대
 - 한일축제한마당 등 풀뿌리차원의 문화교류 내실화,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함
- 다음 한일경제인회의는 제50회를 기념하여 2018년 일본에서 개최

『2017년도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 개최결과

■ 기 간	2017년 10월 15일(일)
■ 장 소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 안양컨트리클럽
■ 테 마	협회 회장단과 주한일본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와의 친선교류활동



<친선교류 단체사진>



<인사말하는 김 윤 협회장>



<인사말하는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건배제창하는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 2017년도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교류 개최결과

- 주한일본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SJC 관계자들을 초청,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
- 김윤 회장은 경제계는 정치적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강조
- 나가미네 대사는 B to B는 벙커 to 벙커가 아닌 비즈니스 to 비즈니스로 해석하고, 양국간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일간의 B to B 관계가 영원하기를 기대

※ 문의 : 서광현 과장(02-3014-9886)☎

『제1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기 간	2017년 8월 27일(일)~30일(수)
■ 장 소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그랜드호텔
■ 프로그램	테마 :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지방간 협력 • 분과회1 : 지자체(한일 공통과제) • 분과회2 : 이노베이션 • 분과회3 : 호쿠리쿠세어 Top100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회
■ 규 모	한일 양국 정부·기업(단체) 관계자 171명(한국 120명, 일본 51명)



<본회의 전경>



<비즈니스상담회 전경>

✓ 제1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회의)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지방간 협력'을 테마로, 지방자치단체 시책 공유 및 지자체·경제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경쟁력강화 정책, 올림픽, 의료관광, 해외진출지원, 지역산업인력 양성 등
 - 한일이 원점으로 돌아가 서로 공존·발전하는 관계의 공감대 형성
- (상담회) 호쿠리쿠 3현(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의 세어 TOP기업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지역 식문화 공동홍보로 **일본시장 개척 및 지역발전에 기여**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0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는 약 2.5배가 성장 ('00년 543억엔 → '16년 1,379억엔)
 - 한국 15개사, 일본 5개사 총 20사 33건 상담실시(상담금액 150만달러)
 - 미슐링가이드에 버금가는 유럽의 유명 레스토랑 가이드북인 고에미요(Gault&Millau)의 정보발신력을 통한 유럽·남미지역 관광객의 한국방문홍보
 - * 지역 식문화의 한일 공동 PR(호쿠리쿠회의 대상지역 식문화 홍보)

※ 문의 : 이유경 연구원(02-3014-9888) 

■ 제18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보도자료

매일경제**지방간 교류협력 모색.... 안동서 ‘한일 경제교류회의’**

2017. 8. 28

한국과 일본 호쿠리쿠(北陸)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제18회 한·일(호쿠리쿠·北陸) 경제교류회의가 28일 경북 안동에서 열렸다.

회의는 한국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의 무역·투자·산업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호쿠리쿠는 혼슈(本州) 내 도야마(富山)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을 묶어 이르는 지역이다. 섬유와 발효식품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산업, 산업·건설기계와 전기전자부품 제조 등 기계 관련 산업이 집적된 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과 경북도·대구시·강원도 등 동해안 4개 지방자치단체, 경북대 관계자,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장과 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현 자치단체 관계자, 호쿠리쿠경제연합회(AJEC) 등 경제단체 및 기업인 등 50명가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 지방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뒤 협력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또 지자체 분과회·이노베이션 분과회·기업 분과회 등 3개 분과회로 나눠 양국 지자체 정책과 협력 안건을 소개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토론을 이어가거나 기업상담회를 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본회의 시작 전인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을 돌아본 데 이어 29일에는 경북도청과 구미 탄소소재 분야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를 견학한다.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결과

- 제2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동시개최 -

■ 기 간	2017년 11월 29일(수)~12월 1일(금)
■ 장 소	일본 가고시마현 시로야마관광호텔
■ 프로그램	테마 : 한중일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 • 한중일 3국 국장회의, 비즈니스포럼, 식품관광포럼, 산업시찰
■ 규 모	한중일 3국 정부·기업(단체) 관계자 292명 (한국 47명, 중국 105명, 일본 137명, 한중일협력사무국 3명)

✓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결과

- 한중일 삼국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확대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방의 국제화에 기여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3.4배 성장
(’01년 1,638억달러 → ’16년 5,535억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 → 29%로 증가))
-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산의 동기부여·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



<본회의 전경>



<비즈니스포럼 전경>



<식품·관광포럼 입구>



<한중일 3국 국장회의>

※ 문의 : 이유경 연구원(02-3014-9888)☎

『제24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동시개최 -

■ 기 간	2017년 11월 29일(수)~12월 1일(금)
■ 장 소	일본 가고시마현 시로야마관광호텔
■ 프로그램	테마 :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일협력 • 한·일(큐슈) 비즈니스상담회
■ 규 모	한일 3국 정부·기업(단체) 관계자 59명(한국 29명, 일본 30명)

✓ 제2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일 양국이 동시에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방안 제시
 - 고령화율 40%(2060년)에 이르는 국가는 한일뿐임. 초고령화는 한일만의 문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성 향상 시책과 고령화 문제에 직결하는 의료·개호분야에서의 제휴가 필요
 - 의료기기 상호인정협정, 헬스케어 서비스·기기의 표준화 협력, 일본어능력시험 확대 제언
 - IT·관광·간호·요양보호 등 전 산업 분야의 큐슈지역 취업 확대 협력
- * 2017년 한·큐슈간 무역액은 10,076억엔(큐슈경제국제화데이터2017)으로, 한·일 무역총액(7조 7,401억엔, '17년 1월-10월)의 13%를 차지
- (상담회) 한국 12개사·지자체, 일본 17개사 총 29개사 47건 상담실시(상담금액 60만달러)



<회의 대표자 기념사진>



<비즈니스상담회 전경>

※ 문의 : 서광현 과장(02-3014-9886)☎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제2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일정

일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11. 29(수)>				
08:45~10:20	출국 : 인천공항 → 가고시마공항(KE785)			
11:00~11:30	이동 : 가고시마공항 → 사카모토양조			
11:30~13:00	산업시찰Ⅰ 및 결단식			
13:00~14:30	그룹① : 사카모토양조 → 산업시찰Ⅱ A. 요양·보호 시설			
14:30~15:10	그룹① : 산업시찰Ⅱ A. 요양·보호 시설			
15:10~16:10	그룹① : 요양·보호 시설 → 시로야마관광호텔(15:30) → 시찰장소Ⅲ(16:10) *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참석자는 시로야마관광호텔에서 하차			
13:00~14:50	그룹② : 사카모토양조 → 산업시찰Ⅱ B. 에너지시설			
14:50~15:20	그룹② : 산업시찰Ⅱ B. 에너지시설			
15:20~16:10	그룹② : 에너지시설 → 시찰장소Ⅲ			
16:10~17:00	그룹① & 그룹② 시찰시찰Ⅲ : 센간엔			
17:00~17:30	이동 : 센간엔 → 시로야마관광호텔			
16:00~17:30				제2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5F, 루비 히텐)
18:00~19:00	석식(2F, 애머시스트홀)			
19:00~20:30	VIP석식(10F, 스카이하)			
19:30~20:00	이동 : 시로야마관광호텔 → 램가고시마호텔			
20:45~21:30	환황해 한중일 3국 실무자회의(4F, 카틀레야)			
<11. 30(목)>				
①09:00~12:30 ②09:15~12:00 ③10:00~11:30 ④08:50~13:30	①환황해 비즈니스포럼 (2F, 로얄)	②환황해 한중일 3국 정부간국장회의 (4F, 갤러리아)	③환황해 식품·관광포럼 (4F, 에메랄드)	④한·일(큐슈) 비즈니스상담회 (4F, 펄홀)
12:30~13:30	중식			
14:00~17:00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4F, 에메랄드)			
18:30~20:30	가고시마현 주최 환영리셉션(4F, 에메랄드)			
<12. 01(금)>				
09:00~10:00	이동 : 시로야마관광호텔/램가고시마호텔 → 가고시마공항(BUS)			
11:30~13:15	귀국 : 가고시마공항 → 인천공항(KE786)			

■ 제1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제24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보도자료



한중일, 환황해 공동성장 모색...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2017. 11. 30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중일 3국이 맞닿은 환황해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30일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제1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4회 한일 경제교류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에는 '지역 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주제로 열렸다.

3국 정부 대표가 의료·건강관리, 디지털 무역, 환경·에너지, 실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황해 지역의 교류와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경제교류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일 협력방안'을 주제로 의료와 요양 등 분야에서 한국 인재의 일본 채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 기업 11개사와 일본 기업 14개사의 사업 상담회도 개최했다.

양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환황해 회의는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정부, 지자체, 경제계가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 협력채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이데일리

의료·헬스케어 등서 한중일 협력 강화...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개최

日가고시마서 30일 열려... 290여명 참석, 협력방안 의견 나눠 29일 한-큐슈 경제교류회의에서는 韓인재 일본 채용 논의

2017. 11. 30



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9~30일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및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제16회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및 '제24회 한-큐슈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30일 열린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에서는 지역 간 교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주제로 한중일 정부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2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경제·기술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정부대표는 국장회의를 열어 의료·헬스케어, 디지털 무역, 환경·에너지, 실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환황해 비즈니스포럼'과 '환황해 식품·관광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으며, 지역 간 교류협력에 공헌이 큰 법인·개인과 지자체·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 대상' 표창 식도 실시됐다.

한편 전날 열린 한-큐슈 경제교류회의에서는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일 협력방안'을 주제로 의료·요양 분야 등에서 한국 인재의 일본 채용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환황해 회의는 전세계 GDP의 약 1/4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정부, 지자체, 경제계가 모여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력채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アジアから注目 鹿児島県の「高齢者介護」

2017. 12. 7



中国大陸と朝鮮半島の間にある黄海周辺の日中韓3か国の経済交流を深めようと、先月29日と30日の2日間、鹿児島市で「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議」が開催されました。会議は九州の経済界でつくる九州経済連合会などが主催したもので、鹿児島での開催は初めてです。

3か国持ち回りで毎年開催されていて、今回は日・中・韓の政府や産業界からおおよそ270人が参加しました。

サービスや技術の交流の中でも、特に各国の関心が高かったテーマは、3か国共通の課題といえる、高齢化と介護です。鹿児島からは、介護老人福祉施設を運営する社会福祉法人野の花会が講演し、「介護人材不足が深刻化。限られた人材をいかに有効活用できるか、業務の効率化を目指したい」と、日本の介護施設の現状などを説明しました。

今回の会議には、鹿児島との経済交流を進めている中国東北部、大連市の行政関係者も出席しました。

人口およそ14億人の中国。65歳以上の高齢者の数は現在、およそ1億5000万人ですが、高齢化がピークを迎える2055年には2倍以上の4億人に達するとされています。

人口およそ700万人の大連市でも現在、全体の2割にあたる140万人が高齢者で、今後
も増え続けると予測されています。

会議の翌日、大連市をはじめとする中国からの参加者は、会議で講演していた社会福祉法人野
の花会が運営する鹿児島市の介護老人福祉施設を視察に訪れました。

実はこの施設、職員の負担を軽減する介護支援ロボットを導入するなど、先進的な取り組みが注
目され、今年に入り中国や韓国などから100人以上が視察に訪れています。

参加者たちは、介護支援ロボットやAI＝人工知能を搭載した会話ロボット、また県内では珍し
いというプライバシーや自立を重視したトイレ付きの個室など、高齢者が楽しく快適に過ごすための
取り組みも興味深そうに見学していました。

介護ビジネスを今後の成長分野として期待する大連市の参加者は、「スタッフのきめ細かいサー
ビスや思いやりを感じた。特に介護支援ロボットの導入はとても参考になった」と、鹿児島の介護施
設から学ぶべき点が多いと話していました。

中国や韓国でも課題となっている高齢化と介護。アジアとつながりを持ち、地理的にも近い鹿児島
での取り組みはこれからますます注目されそうです。

참고 URL : http://www.mbc.co.jp/news/mbc_news.php?ibocd=2017120700026939

2018년도 상반기 한일경제협회 사업안내



『2018년도 이사회 및 제37회 정기총회』 개최안내

- 서울시 롯데호텔서울 -

■ 기 간	2018년 2월 중순
■ 장 소	대한민국 서울시 롯데호텔서울
■ 프로그램	이사회, 정기총회
■ 규 모	이사회 : 협회 회장단 약 15명 정기총회 : 협회 회장단 및 회원사 약 50명



<2017년도 이사회 전경>



<제36회 정기총회 전경>

✓ 2018년도 이사회 개최(안)

- 개최일시 : 2018년 2월 중 * 제37회 정기총회와 동시개최
- 개최장소 : 대한민국 롯데호텔서울(소공동)
- 의안
 - 제1호 의안 : 2017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제37회 정기총회 개최(안)의 건

✓ 제37회 정기총회 개최(안)

- 개최일시 : 2018년 2월 중 * 2018년도 이사회와 동시개최
- 개최장소 : 대한민국 롯데호텔서울(소공동)
- 의안
 - 제1호 의안 : 2017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 문의 : 서광현 과장(02-3014-9886)☎

『제19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 일본 도쿄 -

■ 기 간	2018년 3월 28일(수)~29일(목)
■ 장 소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도쿄
■ 테 마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함께 기념하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안) 창조해 가자!
■ 규 모	한일 양국 정부, 기업, 경제단체, 대학 관계자 등 약 70명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란?

-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 위원회 중 무역투자위원회, 기계공업위원회, 산업일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무역회의』를 신설
 - '99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16. 3월까지 총 18회 개최
-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논의사항의 구체적 실현방안 논의, 사전 전문가회의
- 주최기관
 - 주최 : (한국)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본)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제18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본회의 전경>



<대표단 단체사진>

※ 문의 : 김정호 부장(02-3014-9877) / 서광현 과장(02-3014-9886) ☎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 일본 도쿄 -

■ 기 간	2018년 5월 14일(월)~16일(수) *14일(월) 한국측 단장단 일본정부 예방
■ 장 소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도쿄
■ 테 마	미정
■ 규 모	한일 양국 정부, 기업, 경제단체, 대학 관계자 등 약 300명

✓ 한일경제인회의란?

- 1969년 이래 한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 최고경영자 약 300여명이 **한번도 빠짐없이 매 년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간 교류를 증진 및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
- 2018년도에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는 기념비적인 “제50회”를 맞이하게 되었음
- 1969년 제1회회의 이후의 지난 반 세기동안의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회고해봄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향후 50년의 양국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임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심의회>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양국 대표>

※ 문의 : 김정호 부장(02-3014-9877) / 서광현 과장(02-3014-9886)☎

『2018년도 일본시장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안내 - 서울시 COEX -

■ 기 간	2018년 6월 중
■ 장 소	대한민국 서울시 COEX
■ 테 마	미정
■ 규 모	한일경제협회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약 100명

✓ 일본시장전문가 초청 세미나란?

- 개최목적 : 일본시장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對 일본 관심도 제고와 일본시장 정보제공
- 참가대상 : 한일경제협회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주최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2015년도 세미나 전경



2016년도 세미나 전경



2017년도 세미나 전경



2017년도 세미나 개회인사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문의 : 서광현 과장(02-3014-9886)

『이종운 협회 前 상근부회장 육일중수장 수훈』 - 서울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저 -



수훈 기념 단체사진



축사하는 김운 협회장



축사하는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 이종운 협회 前 상근부회장 육일중수장 수훈

-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경제적 관계 강화에 기여
- 이종운 전 상근부회장 협회 재임기간 : 2011년 2월 ~ 2017년 2월 (6년)

※ 문의 : 서광현 과장(02-3014-9886)☎

『신규 회원사 소개』

 (주)아띠글로벌 심윤보 대표이사	■ (주)아띠글로벌 - 업 종 : 무역·유통업, 관광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 창립일 : 2016년 4월 - URL : http://addiglobal.com 
 지오네이션(주) 김효진 대표이사	■ 지오네이션(주) - 업 종 : 금속가공업, 플라스틱 가공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 창립일 : 2014년 6월 - URL : http://geo-nation.com 

『회 원 사 동 정』

 한일경제협회 (주)삼양홀딩스 김 윤 회장	■ 김윤 회장, EY한영 선정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 김윤 회장이 지난 11월 9일 '제11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마스터상을 수상 -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전 세계 60개 국가, 145여 개 도시에서 매년 1000여 명의 전 세계 최고 기업가들에게 시상되고 있는 상 - 선정된 마스터 수상자는 2018년 6월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될 2018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 한국대표로 참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 조현준 회장, 그룹 대표이사 취임 - 지난 2017년 1월 회장 취임 후 7월 그룹 대표이사로 선임 - 조현준 회장이 2007년부터 이끌고 있는 섬유PG가 그룹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과, 조현준 회장의 주도하에 최근 2년간 그룹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	■ 이휘령 사장, 부회장 취임 - 지난 2017년 12월 8일, 세아제강 부회장 취임 - 이휘령 부회장은 세아제강의 미국 현지법인인 Pusan Pipe America (현 SSA) 시절 축적한 미국시장에서의 사업경험과 전문적인 시장정보를 토대로 세아제강의 수출전선을 책임져 옴
 도레이첨단소재(주) 이영관 회장	■ 이영관 회장, 2017년 '고대 MBA 경영대상' 수상 -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이 지난 12월 4일 고대MBA교우회가 선정하는 '제2회 MBA경영대상'을 수상 - 2003년 MBA를 취득, 첨단사업으로 투자확대는 물론 해외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해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

大韓民国のまばゆい未来、 セマングム

世界が注目する「グローバル経済協力の中心地」建設！



©GUNSAN-SI

北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の中心地、 セマングム

セマングム事業は、韓国の西海岸に位置する全羅北道群山市と古群山群島、そして扶安の辺山半島を連結させる世界最長(33.9km)のセマングム防潮堤の内側を開発する事業で、291㎢の陸地と118㎢の湖沼など、計409㎢(ソウルの3分の2)の国土を新しく造る事業である。未来の大韓民国の新成長動力を生み出す事業であり、海を土で埋め立てて巨大な土地を造るという、まさに無から有を創造する事業である。地図になかった土地が徐々に現れる過程は、驚異ともいえる。セマングム事業は、1991年「食糧生産基地」建設のために始められたが、現在は農業用地を含めた産業研究、観光レジャー、国際協

力、環境生態、背後都市などの複合用地開発による「北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の中心地」建設に事業目標が変えられた。多様な用途の機能が調和する複合用地として開発されており、産業間の長所が結合して、グローバルな経済協力の中心地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セマングム事業の強みは、中央政府が直接管轄する経済特区であり、迅速な事業推進とカスタマイズ型支援が可能で、港湾・空港・東西道路・南北道路・セマングム・全州高速道路などの主な基盤施設は国費で建設されるため、安定的な事業推進が可能だという点である。

セマングムの土地利用の基本方針は、需要者(投資者)の要望に沿ったカスタマイズ型対



応を実現するため、各々の機能と特性を活かして産業研究用地・観光レジャー用地・国際協力用地・農生命用地・背後都市用地など6つの圏域に分けられている。また、住居・商業・産業・観光などの主な用途別の面積は最小・最大範囲で提示され、土地利用の柔軟性を高めた。

飛翔するセマングムの開発

実際のところ、これまでセマングムは韓国経済の未来30年を導く成長動力として評価されてきたが、開発の進行が遅れ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環境団体、宗教界、地域住民との葛藤や衝突などの困難を経ながら進められてきた結果、現在、用地の埋め立てとインフラ構築は36%水準にとどまっている。

しかし、最近新政府が初の国策事業訪問地としてセマングムに注目し、セマングム事業に対する強い推進意志を示すに従い、今後は開発に一層拍車かけられる見通しである。去る5月31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セマングム開発現場を訪れ、「北東アジアの経済ハブであり、中国との経済協力の中心地としての可能性が高い場所が、まさにセマングム」と述べ、また、「必要であれば公共埋立に転換して、事業速度を高める」と明かした。これにより、セマングムの環黄海地域における経済拠点への定着は一層早まることが予想される。

特に、新政府が発表した100大政課題には、セマングム事業も含まれている。全ての地域の暮らしを向上させる国家均衡発展課題に込められた内容で、「セマングム事業推進

の速度を上げるため、公共主導埋立、国際空港・新港湾などの物流交通網の早期構築」と明示されており、セマングム開発の実行が改めて約束された。

また、政府はセマングム内の企業誘致と投資活性化のため、破格のインセンティブを提供することを決定した。現在、セマングム事業用地は最大100年間賃貸が可能で、法人税及び所得税は投資金額によって最大5年間100%、以後2年間は50%の減免支援を受けられる。特に、100年間賃貸特例は、外国人投資企業だけでなく、地域経済の活性化と雇用創出に貢献する韓国企業にも適用される。

セマングム事業は、2020年までの1段階、2021年以降の2段階に分けて開発される。1段階は、経済協力特区の造成によって産業用地、新港湾、基盤施設などを構築して民間からの参加の土台を築き、2段階では様々な形の民間投資を促進させ、グローバル企業を誘致して内部開発を活性化させるという計画である。

現在、36%にとどまっている用地埋立は、公共主導に転換できれば、本来の計画どおり2020年まで完了すると予測されている。また、道路をはじめとするインフラ構築が計画どおり進められれば、地域経済の活性化にも大きな支えになる見通しである。

セマングム開発庁の李哲雨(イ・チョルウ)庁長は、「まずは、海の状態であるセマングムを埋め立てて土地が現れれば、企業誘致などの韓国・海外からの投資を積極的に導き出すことができる」と述べ、また、「政府が埋立工事をはじめとする基本インフラ構築の速度を上げ

れば、セマングムは北東アジアの経済拠点としてより早く定着するだろう」と語った。

グローバル経済協力の中心地、セマングム

政府は、韓・中自由貿易協定(FTA)の締結、韓流の拡散、広々とした敷地を活用して、セマングムを北東アジアの自由貿易及び中間財の生産・加工・輸出の核心拠点として造成していく計画である。そのため、政府はセマングムを投資企業活動の障壁がなく、生活に支障がなく、社会文化的差別のない3無自由貿易投資拠点地域として開発していく予定である。

セマングム産業団地の差別化された経済力の1つは、韓国唯一の「韓中FTA産業団地」という点だ。セマングムは、中国の進出を求める韓国企業や米国、欧州連合(EU)などへ新規市場開拓を求める中国企業などにとって最も魅力的な場所に位置している。

海外企業の投資決定には、セマングムの地理的利点と韓・中自由貿易協定(FTA)締結も寄与した。韓・中FTA締結によって、6.5%だった関税が毎年1.3%ずつ下がり、2019年には完全に撤廃されるが、中国と近いセマングムから輸出すると、さらに物流費用まで削減できるからだ。現在、建設中のセマングム新港は、中国との距離が韓国内のどの港よりも近い。中国連雲港港との距離は580kmで、釜山港(906km)、光陽港(767km)に比べてはるかに近い。飛行機では、山東半島まで40分で行ける。

現在、セマングムの周辺には群山国家産業団地、自動車・機械部品クラスター、国家食品クラスターが形成されており、国土の軸をつなぐ巨大な西海岸産業・観光ベルトの中心として定着している。また、四通八達陸路、新港湾と群山港など最適な物流施設をはじめ、周辺には高速鉄道と国際空港などのインフラが構築されつつある。

このような優れた立地条件とインフラを基盤に、既に日本の東レ先端素材、ベルギーのソルベイ・シリカなどのグローバル企業をはじめ、OCI、OCISEなどの韓国企業が入居または投資を進めている。



세마ング금개발청

資料提供：セマングム開発庁
www.saemangeum.go.kr
+82-44-415-1000



『한일 통계자료』

□ 교 역

《단위: 억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0
수 출	396.8 (40.8)	387.9 (△2.2)	346.6 (△10.7)	321.8 (△7.2)	255.8 (△20.5)	243.6 (△4.8)	218.5 (10.0)
수 입	683.2 (6.3)	643.6 (△5.8)	600.3 (△6.7)	537.7 (△10.4)	458.5 (△14.7)	474.7 (3.5)	454.5 (17.6)
무역수지	△286.4	△255.7	△253.7	△215.9	△202.7	△231.1	△236.0
총교역액	1,080.0	1,031.5	946.9	859.5	714.3	718.3	673.0

※ '16년 기준, 일본은 우리의 수출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 2위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대상국임

※ '16년 기준, 일본에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4위, 총 교역액 순위 3위

□ 투 자

《단위: 억불, ()는 건수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9
일 본 의 대한투자	22.9 (502건)	45.4 (564건)	26.9 (447건)	24.9 (352건)	16.7 (315건)	12.5 (229건)	16.9 (241건)
한 국 의 대일투자	4.3 (452건)	7.4 (586건)	9.5 (645건)	5.9 (646건)	18.6 (672건)	6.3 (635건)	4.0 (364건) *2017.6

※ '16년 기준, 외국의 전체 대한투자 중 일본은 6위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일본은 15위임.

※ 한국의 대일투자 실적은 1968년~2016년, ※ 산업통상자원부(일본 → 한국), 한국수출입은행(한국 → 일본)

□ 인적교류

《단위: 만명, ()는 증가율(%) /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JNTO》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0
방 한 일본인	327.0 (8.9)	351.9 (7.0)	274.8 (△23.1)	228.0 (△17.0)	183.8 (△19.4)	229.8 (25.0)	188.7 (0.9)
방 일 한국인	165.8 (△31.3)	204.4 (23.3)	245.6 (20.2)	275.5 (12.2)	400.2 (45.2)	509.0 (27.2)	583.8 (4.0)

* 2016년 12월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의 비중은 중국(47%)에 이어 2위(13%)

『(사)한일경제협회 회원가입 안내』

- 우리협회는(회장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 한일 양국 경제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한일 간 민간 경제협력, 무역증진, 산업협력 등을 위해 1981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자매기관인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기업인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해 가고 있는 우리협회는 일본의 각 지역(호쿠리쿠, 큐슈, 동북, 중부 등)별 비즈니스 네트워크구축과 폭 넓은 한일 경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 회원사간담회 및 SJC(서울재팬클럽)등과의 교류간담회
- 한일 지역간(호쿠리쿠, 큐슈, 동북, 중부 등)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회원사 자녀 대상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운영
- 경영자 및 기술자의 해외연수
- 한국 청년인재의 일본기업 취업 지원
-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초청 기술지도
- 수출확대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지원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수시 정보제공

-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성장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명실상부한 대일협력 창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한글)	(한문)	
	(직위)	(생년월일)	년 월 일 (음/양)
주 소	Ⓜ		
T E L	(대표)	(비서실)	
E - mail	(대표)	(비서실)	
U R L	http://	창 립 일	년 월 일
자산 총액	억원	자 본 금	억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업 종 ※ 해당되는 업종 앞에 하나만 √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광업	기계	운수창고	
섬유, 의복	전기전자	통신업	
종이, 목재, 출판	전기장비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화학	의료정밀	지주회사	
의약품	운수장비	법무, 회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가스	기타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건설업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	
철강, 금속	유통업	그 외 업종()	

<담당 관리부서>

부 서 명		TEL	
담 당 자	(성명)	FAX	
	(직위)	E-mail	

본인은 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

대표자 : ②

(사)한일경제협회 귀중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 khsuh@kje.or.kr) 송부

※ 주소 : (0605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8-4 한일재단빌딩 4층 (FAX : 02-3014-9899)